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다윗과의 언약

성경 : 사무엘하 7장 8-16절

Tag:

8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7:8-1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즈음 이스라엘은 주변 왕국들의 도발에 지쳐있었다. 사사들의 통치는 드라마틱하기는 하였지만, 안정스러운 국정운영과는 거리가 있었다.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였지만, 그 아들들은 벌써부터 뇌물을 받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지만, 단순히 사무엘이 임명한 것이었지 그들에게 왕권이나 군사력이나 영도력은 없었고, 쉽게 말하면 동네의 이장과 같아 단순 판결만 해 주었고 그나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그들에게 무슨 국정에 관한 결정권이나 통치권이나 사법권은 없는 상태였다.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하면 사무엘에게 가서 판단을 받아야 했다.

결국은 왕권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졌다.

모세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잘 마련해 두었다.

신명기 17장 14-17절.

14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6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겸손하고 준수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는 왕권 초기에 완악한 백성들로부터는 신임을 얻지 못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나중에는 완악한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다시금 그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도리어 하나님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었다.

그것은 곧 사무엘과의 관계단절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곧 다윗을 통한 왕국 건설을 계획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자연스런 왕위계승의 길을 예비하셨지만, 놀랍게도 사울은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자격지심과 질투가 자신의 영혼을 사냥하도록 방치하였다. (왕권 교체로 인한 갈등이 너무 심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 덕분에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도 독특한 인생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경험은 후일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침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면서 명실공히 다윗성을 수축하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까지 사들이며 법궤를 모셔오고 다윗의 장막까지 세우면서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을 때 그는 감격과 흥분에 싸여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하려는 강한 감동에 휩싸이게 된다.

그는 이 감동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도다’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 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지금껏 휘장 가운데 거하였고 그 어느 누구에게든 성전을 건축하라 하지 아니하였다.

만군의 하나님이 네게 말한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여 전과 같이 악한 종류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는 사사들의 시대와 달리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3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

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대상28:3)

네가 수한이 차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네 아들이 너를 대신 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가신다.

다윗이 요구하지 않은 언약을 맺으신다.

다윗으로서는 과분한 언약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마스터플랜이 었다.

-하나님으로서는 일종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게 된다.

-원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내 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심는대로 거두는 것이 변함없는 법칙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왕정 하에서는 사울왕 같 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커진다. 왕이 변절하게 되면 왕위 계승을 따라 복잡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왕 위를 영원히 보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바로 메시아 대망과 왕권을 묶어 버리신 것이다. 어차피 메시아는 만왕 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에 게서 왕위의 명분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조가 바뀌는 대혼란은 방지될 것이다.

특히 언약에 왕위의 영원성을 추가한 것은 명백히 메시아 대망을 다 윗 왕조와 연결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혹 다윗이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왕조를 버리지 않으시겠 다는 언약인 셈이다.

그렇다면 마귀가 왕을 유혹하여 마침내 저주받을 짓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할까? 안전 장치가 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방법이다.

-왕조는 유지되지만, 당사자에게는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벌을 받고, 인생 채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로서 충분하다.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구원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뻔한 편법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한발 더 나아가셨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자녀와는 하나님이 부자관계를 맺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에 들어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와 같다. 부자관계는 천륜이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형법을 초월하는 관계가 되어, 형법이 집행되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랑의 관계인 셈이다.

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기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7:8-16)

훗날 다윗의 죄악으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지만, 약속된 심판은 어김없이 집

행되어 다윗 자신도 사람의 매와 인생채찍으로 고통당한다.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왜냐면 그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만다.

이 요압은 완악할 백성을 대표한다.

완악한 백성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척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자들이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악행하는 자들이다.

사울은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다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다윗은 완악한 백성을 끝까지 이용해 먹지만, 그들의 죄악에는 관여하지 않다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는 요압의 이러저러한 죄를 물어 죽이도록 명령한다. 왜냐면 그가 반역하게 되면 아들 솔로몬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는 엄연히 법도 존재하지만,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철저한 회심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의 영원한 통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완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